

# 나눔·어울림의 한마당... 새로운 천년, 영광에서 열다

영광 법성포 단오제 6월 15~18일



조선 중기 이후 대중적 행사로 자리잡아 매년 음력 4월 5일 난장트기로 시작 단오제례·당산제·용왕제·공연 등 민속문화·체험 프로 등 즐길거리 다채



영광 법성포 단오제 씨름대회.



법성포 단오제 전통놀이.



법성포 단오제 국악공연.

“새로운 천년, 영광에서 시작하라.”  
굽비의 본고장인 영광 법성포. 이곳에선 매년 음력 5월 5일을 전후로 단오제의 흥겨운 마당이 펼쳐진다. 올해는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오제례와 당산제, 용왕제, 산신제 등 우리 고유 민속문화를 재현함은 물론 전국단위 민속 문화 행사인 국악경연 대회와 단오장사 씨름대회, 다양한 민속놀이 경연 등 다채로운 참여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 법성포에 조창 형성 출발점...조선 중기 이후 대중적 행사로  
영광 법성포 단오제의 시작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살펴볼 때 법성포에 조창이 형성된 때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법성포에 조창을 세운 것은 고려 성종 11년(992년)이다. 조창이란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세곡을 모아 보관하고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창고를 가리킨다.

이후 조선 중종7년(1512년) 때에는 영산포창이 폐창하고 법성창으로 옮겨졌다.  
당시 법성창은 28개 고을의 조세를 관장하는 개경 이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창이 됐다.  
세곡을 지키기 위한 많은 군사가 주둔하게 되었을 것이고 조운선에 세곡을 운반할 인부도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와 인부들을 따라온 식솔들과 장사꾼들이 거주하게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성포에 거주하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명절인 단오가 자연스럽게 제전의 형태를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법성포단오제가 대중적 행사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로 추정한다.  
조선 중종9년(1514년)에 진성이 축조됐고 이 시기에 느티나무를 심어 방풍림과 휴양지로 활용했다.  
이 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후 70~100년간 성장해 무성한 숲을 형성하게 된 후로부터는 숲을 이룬 골짜기에서 비롯돼 ‘숲쟁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오늘날까지 단오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조창이 설치된 이래 산물이 풍성해 이곳에 자주 드나들던 보부상과 법성포의 유수한 물산객주들이 ‘백목전계’라는 협동조직을 만들어 치렀다.  
이러한 전통은 시대를 뛰어넘어 매년 음력 4월5일에 난장트기를 시작으로 단오제 행사로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 줄다리기와 씨름대회, 나눔과 어울림의 한마당 큰 잔치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나눔과 어울림의 한마당이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단오제가 어울림만 있고 나눔의 장이 없는 데 비해 법성포단오제는 나눔의 장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법성포 뉴타운에서 '2018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지난해 단오제 기간 열렸던 용왕제 재현 모습. <영광군 제공>

다.  
단오절이 되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귀천의 차이도 없이 서로 정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다.  
정초에 하는 줄다리기 외에 단오절에도 줄다리기를 했는데 법성진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힘을 겨루면서 풍년과 풍어를 기원했다.  
영광법성포단오제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면 당산나무에 줄을 감아서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였는데 법성포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난 후 우람한 동아줄을 분리해 선박의 닻줄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법성포단오제만의 특징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인 단오절에 여러가지 민속행사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다져왔다.  
이러한 민족문화가 거의 사라진 지금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는 전국국악경연, 단오장사씨름대회, 그네뛰기, 옷놀이, 제기차기 등을 비롯한 민속행사와 산신제, 당산제, 한제, 용왕제, 선유놀이 등 제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됐으며 2010년도에는 페스티벌 뉴스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123호로 지정돼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다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단오 보존회를 중심으로 관광객과 군민이 다함께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가 한창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법성포 단오제 축제를 함께 즐기고 영광의 다양한 음식과 아름다운 관광지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행사 일정표

일자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영광학생예술제	09:00~18:00	행사장 일원
	산신제(인의제)	11:00~13:00	인의산 인의정
	전국 시조 경창대회	09:00~17:00	행사장 주무대
6.15 (금)	단오제 퍼레이드	17:00~19:00	법성교차로~행사장 주무대
	식전공연 (홍농초 관현악단)	18:00~19:00	행사장 주무대
	영광법성포단오제 개막식 개막퍼포먼스(미디어 대북공연) 축하공연 (에일리, 김연자, 성진우 등)	19:30~19:45 19:45~21:00	행사장 주무대
6.16 (토)	대통령배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모시잎 송편 만들기 경연대회 용줄다리기	10:00~17:00 10:00~11:00 11:00~12:00	행사장내 씨름장 행사장 주무대 행사장 일원
	당산제 전국청소년 트로트가요제 (EXID)	12:00~14:00 14:00~21:00	법성진성 당산 행사장 주무대
	제17회 전국국악경연대회	09:00~18:00	행사장 주무대
6.17 (일)	대통령배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평양예술단 공연 단오가요제(임창정, 라붐)	10:00~17:00 18:00~19:00 19:00~21:00	행사장내 씨름장 행사장 주무대 행사장 주무대
	단오장사 씨름대회 단오 작은음악회 실버장기자랑	10:00~17:00 10:00~11:00 11:00~13:00	행사장내 씨름장 행사장 주무대 행사장 주무대
	민속놀이 경연대회 (투호, 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13:00~15:00	행사장일원
단오	용왕제 선유놀이 "바다에 풍류를 띄우다" 법성포 단오제 폐막식 및 공연 (홍진영, 태진자, 설하윤, DJ-DOC)	15:00~18:00 16:00~18:00 18:00~21:00	법성포 앞바다 법성포 앞바다 행사장 주무대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oticon PEOPLE FIRST

##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